

미리보는 2005년 요가계

‘요가=체조’ 오해 씻고 전문성으로 승부

해가 바뀌면서 현 자리를 다지고 새 자리를 펼쳐려는 요가계 움직임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요가 인구의 증대에 따라 새로운 커리큘럼과 함께 지부를 확장하기 위한 계획 등이 거듭 논의되고 있으며, 수준이 높아진 요가수행자의 수행육구를 수렴하기 위한 체계와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요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논하는 목소리가 커져기도 했고, 대체의학으로서 요가를 폭넓게 응용하려는 시도 역시 요가 안팎에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요가 단체와 요가학계의 신년계획을 중심으로 2005년 요가계 주요 키워드를 짚어본다.

미흡수 없다 '전문가 양성'

한국요가연합회(회장 신석규·구 한국요가지도자연합회)는 최근 사단법인으로 등록하면서 2005년 사업 방향을 '요가교육의 전문화'로 압축 제시했다. 요가 단체로서는 드물게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요가학술대회를 4년째 개최해 온 한국요가연합회는 올해 역시 6·10월 두 차례에 걸쳐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국요가연합회는 전문적인 요가지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요가지도자 교재'를 3년째 기획해왔다. 김성홍 기획국장 은 "올해는 요가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재발간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요가지도자 교육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8월에는 10·30일에 걸쳐 요가지도자들을 위한 인도 요가 교육 기관 연수를 실시하고, 요가인 운영자와 요가 강사들을 대상으로 요가대학 전문과정 운영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요가학과 역시

요가 전문 인력 양성을 올해 최고 과제로 꼽는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요가학 석사를 배출한 이래 올 2월 5명의 석사를 추가로 내보내는 원광대는 양성된 인력을 중심으로 산스크리트어 원전 연구 및 번역 등에 매진할 계획이다.

학과장 김순금 교수는 "지난해 마련된 요가학 연구실에서 1월 10일부터 원서강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강독회를 거쳐 국내에 보급되지 않은 원전번역서를 1년에 한 권 이상 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은 고급 수련자들을 대상으로 작년 8월 '쿤달리니 요가 과정'을 시작한 이후 올 2월 처음으로 40여명에 이르는 코스 수료자를 배출한다. 국내에서 최초로 선보인 쿤달리니 수련 과정은 올해 역시 요가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요가에도 문화가 있다

체조에 그치는 동작 보급으로 한계를 지적받은 요가계는 최근 요가 관련 문화를 일선에 확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최초로 요가문화잡지를 발간한 '요가코리아' 측은 4권의 잡지를 선보이며 요가 문화의 대중적 보급에 기여했다.

이 같은 흐름에 이어 춘해대학교 요가학과 교수 및 학생들은 올 3월 웹진 <요가저널>을 발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춘해대 요가학과장 과미자 교수는 "계간지를 목표로 요가 생리학, 요가 심리학, 요가 철학을 비롯해 인도전통의학인 आयुर्वेद(아유르베다), 다양한 명상법 등을 두루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춘해대 요가과는 상대적으로 일반에 생소한 요가의 계층을 널리 알린다는 취지 하에 채식동아리를 운영하기로 했다. 불살생 등 요가수행자들의 금기 항목에 대한 대중적인 이해를 돕는 한편, 채식을 통한 신체의 정화 및 수행력 증진 효과 등을 학문적



새 태양을 맞이하는 요가계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해두로 내걸었다. 사진제공=아름다운 요가동호회

으로 규명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한 달에 하루씩 채식의 날을 선정해 실질적인 채식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도 있다.

이와 함께 춘해대 요가과는 춘해대 기숙사에 인도 아슈람 생활 패턴을 도입할 것을 검토 중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요가수행과 침묵수행 시간을 마련하는 등 기숙사와 수행공동체의 접점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국제요가협회(회장 정판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삼성, LG 등 국내 우수기업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요가연수를 강화하는 한편, 체육관이나 헬스클럽 등을 요가원으로 흡수하면서 요가를 통한 생활건강 증진을 추구할 계획이다.

제도권 의학으로 한걸음 더

지난해 요가와 건강과의 관련성에 주목한 논문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요가를 치유수단으로 응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특히 꽃마을 한방병원(원장 강명자)의 경우 요가연구실을 별도로 마련해 불임치료 등에 요가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제도권 병원에서 요가를 치료 관련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요가치료학 전공 과정에서는 이 같은 추세를 이어 올 한해 치유요가를 본격적으로 연구·도입한다. 그 가운데서도 '어린이요가'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가족 관계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새로운 가족요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며, 일반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동작명상 프로그램 역시 한창 검토 중에 있다.

또 지난해 개설한 '요가연구소'를 중심으로 스트레스와 불안감 등을 요가로 진정·치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생각이다. 요가치료학 조교수 겸 주임교수는 "올 한해 요가치유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와 실습을 거쳐 대중적인 교육 프로그램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익요가협회(회장 이희주) 역시 그동안 협회차원에서 특화시켜온 임산부 요가 과정을 확대·개편한다. 또한 '요가를 통한 홍익인간의 실현'이라는 모토 하에 지난해 중점적으로 준비해온 '장애우를 위한 전문 요가' 보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신재 기자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1> 연재를 시작하며

틈 나는대로 경전을 읽고 선어록을 열람하고 또 나름대로 글을 써왔다. 그리고 가끔 번역도 하고 그걸 묶어 책으로 세상에 선보인 적도 있었다. 그런 일련의 작업 속에서 선불교가 가지고 있는 숨어있는 매력들이 일러지기 시작했다.

선종승려들만의 독특한 세계관과 현실관 그리고 생명력은 '일상성의 종교'로서의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수행자로서의 엄격함과 같 날같은 정진력 뒤켠에서 묻어나오는 인간적 빈민과 고뇌 그리고 인정스러움이 때로는 더 가슴에 와 닿았다.

그야말로 '사람냄새'가 주는 아름다움이었다. 때로는 '인간적'이라는 말이 가지는 한계인 속속선 차원에 머물러있지 않고 이것을 공부로 승화시켜 버리는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그 절묘한 반전은 지혜 그 자

은 이야기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오늘에 다시 되살려보겠다는 것이 연재하는 사람으로서의 변(變)이라면 변(變)이다.

선종의 1700공안은 이미 법칙화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다른 박제화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생명력 그 자체였다.

따라서 그 공안이 생명력을 가지기 위해선 지금도 계속 화두가 만들어져야 하는 당위성이 도출된다.

그 공안은 '차나 한잔 마시게' 대신에 '커피나 한 잔 하게'라는 뛰어난 식의 모방이라면 그것도 곤란하다. 그나마 현재 가장 대중화되어 있는 '이렇고' 화두는 만들어진지 100년 정도로 추정되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순수토종 창조적 공안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1700공안이 문제가 아니라

일상성의 종교인 선종의 진면목 오늘의 우리 이야기로 풀어보자

제이다.

비구와 비구, 비구와 비구니 끼리는 말할 것도 없고 승려와 거사, 그리고 승려와 청신녀 등 다양한 상황의 설정과 긴장감이 주는 팽팽함은 이제 천년세월을 넘어 또다른 신화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신화는 생명력을 어떻게 불어넣느냐에 따라 현재가 되기도 한다. 살 따로 불교 따로, 당승(唐僧) 시대 따로 한국시대 따로가 되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잘못이다.

신화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의 또다른 우리의 현실이다. 바로 우리의 현재이기도 하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신화로서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 그 선종사의 신화갈

이 이후 공안이 단절되었다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다. 이후의 역사가 없다보니 과거로 되돌아 갈 수 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복제가 가게 됐고, 복제는 박제가 되고, 그러다보니 현재와 무관한 남의 나라 먼 이야기 가 되어 버렸다.

어쨌거나 '일상성의 종교'인 선종(禪宗)의 진면목을 한 꺼풀씩 벗겨내면서 그 일화가 의미하는 당시의 일상성을 읽어낼 수 있다면 오늘날의 그것도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닌다. 고전이 가지는 영원한 생명력의 원천이 여기에 있는 까닭이다. 이것이 온고지신(溫故知新)이요 범고창신(法古創新)이며 계몽개래(繼往開來)가 아니겠는가.



원철 스님(사진)은 해인사로 출가하였으며, 해인사승가대학·실상사화엄학림·동국대(경주)불교학과 강사를 지냈다. 번역서로는 <역주 선림승보전 上·下>(정경각)이 있으며, 틈틈이 경전과 선어록 번역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을 맡고 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혀주는 본래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중랑구 명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02)396-2736
http://www.avatarcntr.com.kr
E-mail: heegyun@avata21.com

謹賀新年 佛紀 2549年 을유년 새해 자비광명 온누리

<p>최초 [법문가요] 보급사찰 대한불교법화종 법만사</p> <p>주 지 법만 합장 신도회·법연회</p> <p>서울시 중랑구 중화1동 274-63 TEL 02)433-6591-2</p>	<p>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기도도량 성주산백운사</p> <p>주 지 법찬 사부대중 일동</p> <p>■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리 산 35-2번지 TEL 041)933-5020</p>	<p>대한불교 조계종 용화사</p> <p>주 지 도원</p> <p>■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404 TEL 053)614-3087</p>	<p>해동최초가람 태조산도리사</p> <p>주 지 응산 법등 총무 법조</p> <p>신도회장 황경환 박경호</p> <p>경북 구미시 해평면 송곡리 403 TEL 054)474-3737 FAX 054)474-8630 홈페이지 www.dorisa.or.kr</p>	<p>구미불교대학</p> <p>학 장 응산 법등 학 감 승오</p> <p>경북 구미시 봉곡동 205-1 TEL 054)453-0571 cafe.daum.net/buddhistschool</p>	<p>금오종합사회복지관</p> <p>주 지 응산 법등 부 관 장 진 오 부설 시설장 법 현</p> <p>연꽃어린이집 재가복지봉사센터 학대이동센터 치매어르신주간보호센터 푸드뱅크</p> <p>경북 구미시 도량1동 666 TEL 054)458-0230 www.geumo.or.kr</p>
<p>2005년 1월 1일자(본지 507호) 법만사 신년인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을 대한불교법화종으로 바로 잡습니다</p>	<p>대한불교조계종 장곡산삼밀사</p> <p>주 지 이동하 신도일동</p> <p>■ 경남 진해시 여좌동 산75 주 지 실 055)544-5962 중무소 055)543-2931</p>	<p>대한불교원효종 최정산대원사</p> <p>중앙교육원장 서응스님 주석사찰 주 지 대원(김연희)</p> <p>■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56-1 TEL 053)768-0887</p>			

